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편)

1. 대학 등록금 추이와 현황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설립유형별 등록금제도 개요

2024년 기준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전수학교 제외)은 총 1,171개 기관에 325.6만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유형별로는, 대학이 810개교, 단기대학이 303개교, 고등전문학교가 58개교가 있다. 그 외에 전문 과정을 운영하는 전수학교 2,693개교가 있다.

〈표 1〉 일본 고등교육기관 수 및 학생 수 현황 (2024년 기준)

(단위 : 명, %)

	고등교육기관					학생						
	계	대학	단기 대학	고등 전문 학교	전수 학교 (전문 과정)	계	대학원	대학 (학부)	단기 대학 (본과)	고등 전문 (4,5년차)	통신 교육	전수 학교 (전문 과정)
합계	1,171	810(661)	303	58	2,693	3,255,643	265,977	2,632,775	83,585	20,903	252,403	555,34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립	137	86(86)	-	51	8	604,744	154,706	431,207	-	18,831		239
	11.7	10.6(13.0)	-	87.9	0.3	18.6	58.2	16.4	-	90.1		0.0
공립	120	102(90)	15	3	178	169,946	17,796	145,683	5,040	1,427		21,495
	10.2	12.6(13.6)	5.0	5.2	6.6	5.2	6.7	5.5	6.0	6.8		3.9
사립	914	485(288)	288	4	2,507	2,480,953	93,475	2,055,885	78,545	645	252,403	533,608
	78.1	76.8(73.4)	95.0	6.9	93.1	76.2	35.1	78.1	94.0	3.1	100.0	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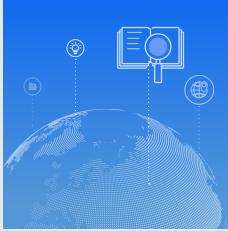
주: 1) 기관수에는 통신교육만을 실시하는 대학 및 단기대학(2개교)은 제외하되, 학생모집정지기관은 포함함.

2) 대학의 ()안의 수치는 대학 가운데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 수임.

자료: 文部科学省(2024d), (2)-2-2.

이들 기관 각각의 설립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전문학교’의 경우 국립이 87.9%로 압도적으로 많고 공립과 사립은 각각 5.2%와 6.9%에 그친다. 그러나 그 외 기관의 경우 압도적으로 사립기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관수 측면에서는 대학의 73.4%, 단기대학의 95.5%가 사립기관이다. 학생 수 측면에서도 대학(학부)의 78.1%, 단기대학의 94.0%가 사립기관에 재학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¹⁾ 학생 수 기준으로 사립대학의 비중은 대학(학부)의 경우 우리나라(76.4%)가 약간 더 낮은 수준이며, 전문대학의 경우는 우리나라(98.0%)가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경우 공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국립대학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1)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우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 학부 기준)의 경우 학교수를 기준으로 국립, 공립, 사립의 비중은 각각 21.9%, 0.5%, 77.6%이고,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각 22.9%, 0.6%, 76.4%임. 전문대학의 경우 학교수를 기준으로 국립, 공립, 사립의 비중이 각각 0.8%, 5.3%, 93.9%이고,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각 0.5%, 1.5%, 98.0%임.



일본의 대학은 설립유형별로 등록금이 상이하다. 국립대학의 경우 문부과학성령에 표준액을 설정하고, 표준액의 120% 내에서 대학별로 등록금을 결정한다.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그리고 미국의 주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본 공립대학은 대학 소재지에 주소를 둔(지역 내) 학생에게는 대학 소재지 외에 주소를 둔(지역 외) 학생보다 좀 더 저렴한 등록금을 징수한다.

2024년도 대학 설립유형별 '초년도 등록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립대학(817,800엔)이 가장 저렴하며, 공립대학(839,988엔) < 사립대학(1,653,535엔) 순으로 나타난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국립대학 등록금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공립대학의 경우 지역 외 학생의 등록금이 지역 내 학생의 등록금보다 약 20% 정도 높은 수준이다.

〈표 2〉 일본의 대학 설립유형별 연평균 등록금 현황 (2024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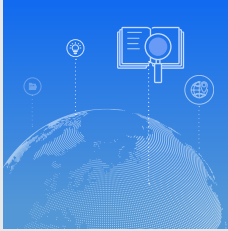
(단위 : 엔)

국립대학(표준액)			공립대학(평균액)			사립대학(평균액)	
주간	입학금	282,000	지역 내	입학금	221,399	입학금	258,434
	수업료	535,800		수업료	536,471	수업료	985,236
	초년도 등록금	817,800		초년도 등록금	839,988	초년도 등록금	1,653,535
야간	입학금	141,000	지역 외	입학금	382,423		
	수업료	267,900		수업료	536,391		
	초년도 등록금	408,900		초년도 등록금	1,006,239		

주: 초년도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시설설비비, 각종 회비 등 1년 차에 입금하는 학비임. 국립대학은 문부과학성령에 따른 표준액임.
자료: 旺文社(2024).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전공계열별로 학비 평균액이 다르다. 먼저 공립대학의 경우 초년도등록금을 기준으로 볼 때, 지역 내 학생의 경우 의학부(967,531엔)가 가장 높은 반면 문학부(732,499엔)가 가장 낮았고, 지역 외 학생의 경우 의학부(1,268,350엔)가 가장 높은 반면 체육건강과학부(913,525엔)가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사립대학의 경우 의학부(7,122,754엔)가 가장 높은 반면, 문학부(1,321,788엔)가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전공계열과 가장 낮은 전공계열 간 등록금 격차는 사립대학(5,800,966엔)이 가장 높고, 지역 외 학생 대상 공립대학(354,825엔), 지역 내 학생 대상 공립대학(235,032엔) 순이었다.

그런데, 특히 2023년 대비 2024년 일본의 사립대학 수업료는 전공계열별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의학부(5만 5천 엔 증가), 예술학부(3만 5천 엔 증가), 법학부(1만 7천 엔 증가), 이학부(1만 5천 엔 증가), 경제/경영/상학부(1만 3천 엔 증가)가 전년도 대비 만 엔 이상 등록금이 인상되었다.



〈표 3〉 2024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학부 계열별 학비 평균액

(단위 : 엔)

학부 계열	국립대학						사립대학		
	지역 내			지역 외					
	입학금	수업료	초년도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초년도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초년도 등록금
문학부	214,415	523,372	732,499	343,078	521,706	916,542	227,358	814,495	1,321,788
외국어학부	203,029	520,041	782,999	355,200	519,056	937,639	224,810	800,054	1,314,391
인문·교양· 인간과학부	218,263	532,831	805,593	359,886	532,189	970,056	225,657	846,447	1,342,116
교육· 교원양성학부	236,580	540,711	754,625	367,566	539,044	940,977	233,102	812,496	1,372,084
법학부	197,493	534,646	761,051	349,057	533,657	949,815	218,244	812,872	1,284,127
경제·경영·상학부	212,010	541,353	814,271	364,032	540,958	981,351	223,700	811,035	1,302,154
사회· 사회복지학부	213,780	540,547	780,877	360,995	539,656	958,047	226,366	823,489	1,330,539
국제관계학부	218,179	544,314	847,662	367,289	544,630	1,001,921	221,028	841,100	1,343,723
이학부	217,812	537,240	759,418	352,155	535,742	944,707	226,738	1,094,603	1,612,198
공학부	219,340	537,428	786,568	351,732	537,141	946,708	232,391	1,096,910	1,644,956
농·수의축산· 수산학부	235,783	535,800	810,333	373,867	535,800	948,416	246,923	998,353	1,641,364
의학부	258,125	540,450	967,531	555,571	541,114	1,268,350	1,346,774	2,738,548	7,122,754
치학부	282,000	535,800	825,600	520,000	535,800	1,063,600	594,118	2,963,529	5,136,618
약학부	207,286	535,800	866,000	392,457	535,800	1,051,172	308,658	1,410,203	2,138,950
간호·의료· 영양학부	225,044	537,286	825,162	382,087	537,133	991,810	257,620	992,367	1,711,494
가정·생활과학부	215,585	537,162	814,253	386,554	537,162	988,107	235,768	809,817	1,402,026
체육건강과학부	189,875	557,100	765,950	337,450	557,100	913,525	236,769	850,787	1,425,847
예술학부	228,880	537,642	808,032	385,313	537,070	985,256	233,407	1,071,543	1,682,073

자료: 旺文社(2024).

나. 국립대학의 등록금

일본 국립대학의 입학금 및 수업료(授業料, 등록금)는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성령(省令)에서 정한 표준액을 따르고 있다. 2025년 1월 현재까지 적용되는 문부과학성령인 「국립대학 등의 수업료 그 외의 비용에 관한 성령」(2005년 3월 31일 문부과학성령 제16호) 제2조에 제시된 표준액은 〈표 4〉와 같다. 이들 표준액은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의 산정에도 사용되는데, 수업료 등의 가격 인상이 운영비 교부금 배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 4〉 일본 국립대학 수업료 등의 표준액 (2023년도)

(단위 : 엔)

구분		연 금액
수업료	학부·대학원	535,800
	법과대학원	804,000
입학료	학부·대학원	282,000
검정료	학부	17,000
	대학원	30,000

자료: 文部科学省(2024e), (4)-1-8.

2024년도까지의 국립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표준액 추이는 〈표 5〉와 같다.

〈표 5〉 일본 국립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추이(주간 1990~2024년)

(단위 : 엔)

연도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연도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1990	206,000	339,600	2008	282,000	535,800
1991	"	375,600	2009	"	"
1992	230,000	"	2010	"	"
1993	"	411,600	2011	"	"
1994	260,000	"	2012	"	"
1995	"	447,600	2013	"	"
1996	270,000	"	2014	"	"
1997	"	469,200	2015	"	"
1998	275,000	"	2016	"	"
1999	"	478,800	2017	"	"
2000	277,000	"	2018	"	"
2001	"	496,800	2019	"	"
2002	282,000	"	2020	"	"
2003	"	520,800	2021	"	"
2004	"	"	2022	"	"
2005	"	535,800	2023	"	"
2006	"	"	2024	"	"
2007	"	"			

자료: 文部科学省(2024d), (4)-1-16과 (4)-1-17.

또한 성령 제10조에 근거하여 각 대학은 표준액의 120%를 상한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학칙 등에 의해 수업료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하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각 국립대학은 표준액의 20%까지 상한(上限)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일본 국립대학의 입학금 표준액은 282,000엔이며, 수업료는 535,800엔이다. 2024년 기준 표준액보다 높은 수준의 수업료를 설정하는 대학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 일본 국립대학 수업료 등의 표준액보다 높은 수업료 대학 현황(2024년 기준)

(단위 : 엔)

구분		연 금액	성령 표준액
수업료	특정 연구과 등에서 표준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설정한 대학 (3개교)	도호쿠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회계 전문직 전공 (전문직 학위과정)	589,300
		도쿄 농공대학 대학원 공학부 산업기술전공 (전문직 학위과정)	572,400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경영관리 연구과	642,960
	표준액 이상을 설정한 대학 (7개교) 단, 학사과정 기준 (정책연구대학원은 제외)	도쿄공업대학(2019년 4월 이후 입학자~) (2018.9.공표)	635,400
		도쿄예술대학(2019년 4월 이후 입학자~) (2018.10.공표)	642,960
		지바대학(2020년 4월 이후 입학자~)(2019.6.공표)	642,960
		히토츠바시대학(2020년 4월 이후 입학자~) (2019.9.공표)	642,960
		도쿄의·치과대학(2020년 4월 이후 입학자~) (2019.11.공표)	642,960
		정책연구대학원 대학(2022년 4월 이후 대학원 과정 입학자~)(2021.6.공표)	642,960
		도쿄농공대학(2024년 4월 이후 입학자~)(2023.10.공표)	642,960
			535,800
입학금	표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설정한 대학(1개교)	도쿄예술대학 (학사, 대학원)	338,400
			282,000

자료: 文部科学省(2024e), (4)-1-8.

다. 공립대학의 등록금

한편 공립대학은 입학생이나 보호자의 주소가 지역 내·외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가 다르다. 지역 내의 경우는 납세자가 본인 또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지역 외 학생들보다 입학금과 수업료가 적은 편이다. 문부과학성이 조사한 지역 외 공립대학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평균액은 〈표 7〉, [그림 1]과 같다. 입학금의 경우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업료의 경우 2009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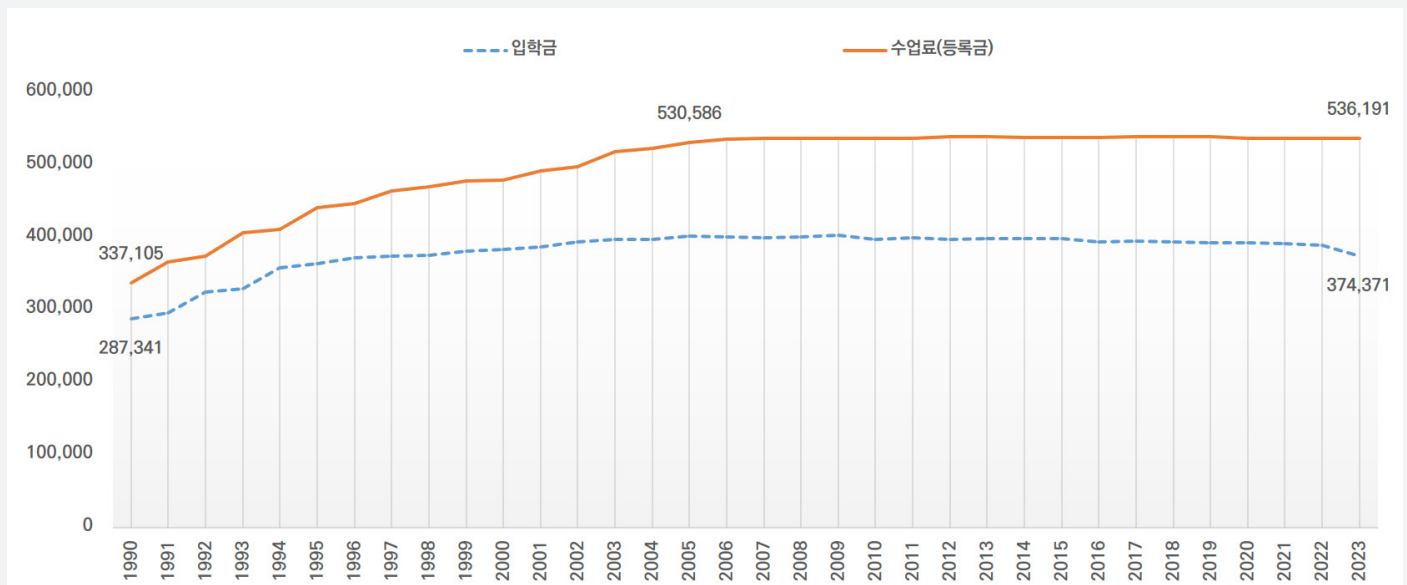


〈표 7〉 일본 공립대학 지역 외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평균액 추이 (1990~2023년)

(단위 :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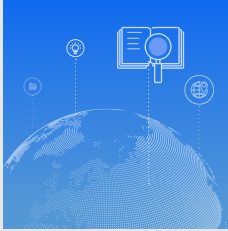
연도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연도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1990	287,341	337,105	2007	399,351	536,238
1991	295,798	366,032	2008	399,986	536,449
1992	324,775	374,160	2009	402,720	536,632
1993	329,467	405,840	2010	397,149	535,962
1994	357,787	410,757	2011	399,058	535,959
1995	363,745	440,471	2012	397,595	537,960
1996	371,288	446,146	2013	397,909	537,933
1997	373,893	463,629	2014	397,721	537,857
1998	375,743	469,200	2015	397,721	537,857
1999	381,271	477,015	2016	393,426	537,809
2000	383,607	478,800	2017	394,225	538,294
2001	387,200	491,170	2018	393,618	538,633
2002	394,097	496,800	2019	392,391	538,734
2003	397,327	517,920	2020	392,111	536,382
2004	397,271	522,118	2021	391,305	536,363
2005	401,380	530,586	2022	389,125	536,195
2006	400,000	535,118	2023	374,371	536,191

자료: 文部科学省(2024d), (4)-1-16과 (4)-1-17.



[그림 1] 일본 공립대학 지역 외 학생의 연 평균 입학금과 수업료 추이(1990~2023년)

자료: 文部科学省(2024d), (4)-1-16 · (4)-1-17 자료 기반 작성



다만, 일본의 공립대학은 지방교부세²⁾를 기본 운영 재원으로 한다. 공립대학에 대한 운영비 교부금 등은 설립단체가 배분방법이나 배분액을 결정하여 교부하는데,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토대로 결정한다. 공립대학에 대한 기준재정수요액은 (단위비용×학생수×종별보정계수)로 결정된다. 단위비용은 사회과학계열 학생 900명 규모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세출(교직원수) 및 세입(수업료 등) 규모로 산출한다. 2023년 기준 공립대학 학생 1인당 단가는 <표 8>과 같다.

〈표 8〉 일본 공립대학 전공계열별 학생 1인당 단위비용과 보정계수 (2023년)

(단위: 엔)

전공계열	단위비용 (A)	보정 계수 (B)	전공계열별 학생 1인당 교부단가(A*B)
의과계	213,000 (학생 900명 규모 사회과학계 대학의 표준 경비로 산출)	17.65	3,759,000
치과계		9.95	2,119,000
이과계		6.85	1,459,000
보건계		7.83	1,668,000
사회과학계		1.00	213,000
인문과학계		2.04	435,000
가정계·예술계		3.25	692,000

자료: 文部科学省(2024e), (4)-1-2.

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표 9〉는 문부과학성에서 조사한 사립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추이다. 2024년 8월에 오분샤(旺文社) 교육정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2024년도 대학 학비 평균액에 따르면, 지역 외 공립대학 입학금은 382,423 엔이고 수업료는 536,391엔이다. 사립대학 평균액은 입학금이 258,434엔, 수업료는 985,236엔이다(旺文社, 2024).

추후 문부과학성에서 조사한 평균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역 외 공립대학 수업료의 평균액은 거의 변동이 없고, 사립대학 수업료의 평균액은 100만 엔에 근접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년 9월에 도쿄대학은 2025년부터 수업료를 20% 올려, 642,960엔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질 높은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국립대의 표준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비율이 30%나 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일부에서는 국립대의 표준액 상한액이 상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지방교부세는 소득세, 법인세, 주세, 소비세의 일정비율, 지방법인세의 전액을 재원으로 하되, 지자체간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일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함.



〈표 9〉 일본 사립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평균액 추이 (1990~2023년)

(단위 : 엔)

연도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연도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1990	266,603	615,486	2007	273,564	834,751
1991	271,151	641,608	2008	273,602	848,178
1992	271,948	668,460	2009	272,169	851,621
1993	275,824	688,046	2010	268,924	858,265
1994	280,892	708,847	2011	269,481	857,763
1995	282,574	728,365	2012	267,608	859,367
1996	287,581	744,733	2013	204,417	860,266
1997	288,471	757,158	2014	261,089	864,384
1998	290,799	770,024	2015	256,069	868,447
1999	290,815	783,298	2016	253,461	877,735
2000	290,691	789,659	2017	252,030	900,093
2001	286,528	799,973	2018	249,985	904,146
2002	284,828	804,367	2019	248,813	911,716
2003	283,306	807,413	2020	247,052	927,705
2004	279,794	817,952	2021	245,951	930,943
2005	280,033	830,583	2022	261,004	967,288
2006	277,262	836,297	2023	240,806	959,205

자료: 文部科学省(2024d), (4)-1-16과 (4)-1-17; 旺文社(2022).

국·공립대학은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간의 등록금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사립대학은 큰 차이가 있다. 초년도 등록금이 높은 순으로 의대-치대-약대-간호·의료·영양-농대·수의축산·수산-공대-자연과학-체육-건강과학-가정·생활과학-교육·교원양성-국제관계-인문·교양·인간과학-사회·사회복지-인문-외국어-경제·경영 순이다. 최근 10년간 등록금 추이를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은 큰 변동은 없으나 사립대학은 수업료의 경우 14.8% 증가한다. 한편으로 입학금은 3.9% 감소했다.

〈표 10〉 최근 14년 사립대학 등록금 변동률

(단위 : 엔)

연도	수업료	입학금
2010년	858,265	268,924
2024년	985,236	258,434
증감율	▲14.8% 증가	▼3.9% 감소

자료: 文部科学省(2024d), 旺文社(2024).



2. 학자금 지원제도

가. 개요

일본 정부 장학금제도는 문부과학성 산하 독립행정법인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에서 운영한다. 장학금은 교육기회 평등의 이념 하로 경제적 이유로 인해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자금 용자, 생활자금 대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ASSO가 운영하는 장학금은 크게 급부형 장학금과 대여형 장학금으로 나뉘며, 대여형 장학금에는 무이자 제1종 장학금과 유이자 제2종 장학금이 있다. 학부생 대상의 경제적 지원제도인 ‘대여형 장학금’과 ‘고등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의 주요 연혁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일본 학자금 지원제도의 주요 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43년	•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사업 신설(무이자 대여 장학금 도입)(2025년 예산안 기준 약 48만명 지원)
1984년	• 유이자 대여 장학금 도입(2025년 예산안 기준 약 65만명 지원)
1999년	• ‘희망 21플랜장학금’ 도입(유이자 장학금 대여 인원 대폭 증가, 기준 완화, 대여 월액)
2004년	•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발족
2017년	• 급부형 장학금 창설(2019년 실적 약 4만명) • 잔존적격자 해소(2016년 기준, 무이자 대여장학금의 기준 충족자 가운데 예산상의 제약으로 수혜 받지 못한 자 약 2.4만명 존재)
2020년	• 고등교육 수학지원 신제도 창설(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수업료 등 감면과 급부형 장학금 대폭 확충)
2024년	• 고등교육 수학지원 신제도 중간층 지원 확충(3명이상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나 이공농계 학생 중산층 대상 지원 확대, 지원대상 기관 엄격 관리) •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료 후불제 창설(졸업 이후 소득 연계 후불제도 납부하는 제도 도입)
2025년	• 다자녀 가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 무상화(3명이상 자녀를 둔 세대에 대해서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국가가 정한 일정액까지 대학 수업료와 입학금 무상화) • 대여형 장학금의 상환 부담 경감(지자체나 기업에 의한 대여형 장학금 상환 지원 유도)

자료: 文部科学省(2024d), 旺文社(2024).

그동안의 대여형 장학금에서 대전환기를 이룬 것은, 2017년부터 급부형 장학금이 도입되면서부터이다. 급부형 장학금은 JASSO가 학생에게 개인별로 일정액을 지급한다. 이후 2019년에 제정된 「대학 등의 수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학생이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 진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주민세 비과세 세대)을 대상으로 장학금 증액, 수업료 감면 등을 확대한 “고등교육수학지원 신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급부형 장학금은 학생의 성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 등 경제적 사유, 학업 의욕 등을 심사하여 지원을 결정하며 생활비와 수업료 감면 등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로, 지원 대상 자격으로 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그에 준하는 세대 학생으로 한정되며, 소비세 인상분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도입 후, 2023년에는 약 34만 명의 학생에게 지원했으며, 2025년 예산에서는 학부생 기준 84.3만 명에게 지원될 것으로 시산(試算)했다.

2024년 실적과 2025년 예산 기준, 학부와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지원 유형별 주요 특징을 종합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학부 약 262.8만명	대학원【석사과정】약 19.4만명	대학원【박사과정】약 7.7만명
특징	▷대여형 장학금으로 폭 넓게 커버 ▷수학 지원 신제도를 창설하여, 저소득 세대에게 여러 대응을 시작.	▷대여형 장학금으로 폭 넓게 커버	▷최근 신진 연구자 지원(연구력 강화 대응) 관점에서 급부형 지원을 강화
대여형 장학금	대여형 장학금 2025년도 예산 사업 규모 : 약 8,076억엔, 약 107만명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통신교육, 해외유학 포함 ○유이자 장학금【세대 연수입~1,250만엔】 최대 : 144만엔/연(年) (월 12만엔) ○무이자 장학금【세대 연수입~803만엔】 최대 : 사립 재택 외 76.8만엔/연 (월 6.4만엔)	대여형 장학금 ○유이자 장학금【본인 연수입~536만엔】 최대 : 180만엔/연(年) (월 15만엔) 2025년 예산안 사업 규모 : 약 63억엔, 약 6,500명 ○무이자 장학금【본인 연수입~299만엔】 최대 : 105.6만엔/연 (월 8.8만엔), 125.6만엔 2025년 예산안 사업 규모 : 약 465억엔, 약 5만명 우수자 반환 면제 제도 ※대여 종료자 중 30%가 전액 또는 반액 면제 ○2024년도 67억엔 6,030명 (실적)	대여형 장학금 ○유이자 장학금【본인 연수입~718만】 최대 : 180만엔/연(年) (월 15만엔) 2025년 예산안 사업 규모 : 약 6억엔, 약 500명 ○무이자 장학금【본인 연수입~340만엔】 최대 : 146.4만엔/연 (월 12.2만엔) 2025년 예산안 사업 규모 : 약 50억엔, 약 4,000명 우수자 반환 면제 제도 ※대여 종료자 중 45%가 전액 또는 반액 면제 ○2024년도 21억엔 779명 (실적)
수업료 지원 등	수학 지원 신제도 2025년도 예산안 7,025억엔, 84.3만명 (국비료 6,532억엔, 지방부담료 493억엔)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통신교육 포함 ※비과세 세대 및 이에 준한 세대, 중간층 이공 등 포함해, 2025년도부터 다자녀세대 지원 확충 수업료 등 감면 최대 : 사립 70만엔/연 급부형 장학금 최대 : 사립 재택 외 91만엔/연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여 재원을 확보해, 2020년 2월 4월부터 실시. ※2025년도부터 다자녀 학생 등에 대해, 수업료·입학금을 소득제한 없이 일정 금액까지 무상화	각 대학의 수업료 면제 제도 (국립) 2025년 예산안 102억엔 약 19,000명 ※인원 수에서는 전액 면제 환산 (사립) 2025년 예산안 5억엔 약 4,000명 ※대학원 료 예산액 (안)을 학생 수로 안분 인원 수는 보조실적에 기반해 시산 ※2024년부터 재학중인 대학원생에게 수업료를 정수하지 않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수업료 후불」 제도를 도입	각 대학의 수업료 면제 제도 (국립) 2025년 예산안 61억엔 약 11,000명 ※인원 수에서는 전액 면제 환산 (사립) 2025년 예산안 1억엔 약 1,000명 ※대학원 료 예산액 (안)을 학생 수로 안분 인원 수는 보조실적에 기반해 시산 <신진 연구자 지원> ▷기존 사업을 통해 180만엔 이상의 자금을 수급 약 4,100명 ·특별연구원(DC) 2025년도 예산안 106억엔 [연구장려금 + 과연비신청가능 + 일부 특별 (최대1500만엔/연) + 수당 36만엔] ·연구장려금 240만엔/연 ▷새로운 박사 후기 과정 학생 지원 약 11,200명 (예산) ·박사후기 과정 학생에 대한 처우 향상과 연구 환경 확보 (지원액: 월치 290만엔/연) 2023년 추경 499억엔 2025년 예산안 0.3억엔 ※별도 대학 펀드 운용익도 충당 ·국가전략분야의 신진 연구자 및 박사 후기 과정 학생 양성 (차세대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액: 월치 390만엔/연) 2023년 추경 70억엔 (※사업 전체로는 213억엔)

[그림 2] 일본 학부·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전체상

자료: 文部科学省(2025a).

수업료 감면과 급부형 장학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수업료 감면의 경우, 주민세 비과세 세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각 대학이 상한액까지 수업료 등을 감면하고 감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표 12〉 일본 대학 설립유형별 수업료 감면 금액 현황

(단위 : 엔)

구분	국공립		사립	
	입학금	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대학	282,000	535,800	260,000	700,000
단기대학	169,200	390,000	250,000	620,000
고등전문학교	84,600	234,600	130,000	700,000
전문학교	70,000	166,800	160,000	590,000

자료: 文部科学省 Site, 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 特設ページ(大学生・高校生・保護者向け)_授業料等減免額(上限)・給付型奨学金の支給額.

급부형 장학금의 경우, 일본학생지원기구가 학생에서 개인별로 학생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표 13>과 같이 생활비를 지급한다.

〈표 13〉 일본 급부형 장학금 금액(제 I 구분)

(단위 : 엔)

구분	자택	자택 외
국공립(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29,200	66,700
국공립(고등전문학교)	19,500	44,500
사립(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38,300	75,800
사립(고등전문학교)	25,600	50,600

주: 지급되는 금액은 월액임.

자료: 日本学生支援機構(2024b) 자료 기반 작성.

일본에서는 JASSO를 통한 문부과학성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교, 지자체, 공익단체 등을 통해서도 급부형 장학금과 대여형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다. 급부형 장학금은 대학교와 공익단체를 통해서, 대여형 장학금은 지자체와 공익단체 등을 통해서 주로 지원되고 있다(<표 14> 참고). 전체적인 수혜자 현황은 <표 14>와 같다.

〈표 14〉 일본 급부·대여 별 장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의료관계기관	영리법인	개인 기타	계
급부	116,187	51,767	109,177	1,010	142	432	278,715
대여	23,273	56,843	73,650	12,012	153	114	166,045
병용	230	494	7,443	1,309	8	0	9,484

자료: 日本学生支援機構(2019).

2023년 정부 장학금 수혜자 등의 실적을 살펴보면,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대학원(석사) 무이자 대여 장학금(30.6%)이며, 다음으로 전수학교전문과정(29.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이자 대여, 무이자 대여, 급부형 장학금 가운데는 유이자 대여의 수혜자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급부형 장학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일본 정부 장학금제도 현황 (2023년)

(단위 : 백만엔, 명, %)

종류	대상	연간경비	수혜자	비중	비고
무이자 대여	학부	208,130	372,058	13.1	△ 재원은 정부대부금 및 반환금 등 △ 금여장학금과 어울러 대여를 받을 경우 대여월액이 조정
	대학원(석사)	39,089	48,347	30.6	
	대학원(박사)	5,947	4,956	8.6	
	고등전문학교	522	1,428	2.5	
	전수학교전문과정	42,124	76,083	14.9	
	통신교육	7	82	-	
소계		295,819	502,954	13.9	
유이자 대여	학부	449,469	536,280	18.9	△ 재원은 재정용자 자금, 재정투자 기관채 및 반환금 등
	대학원(석사)	5,451	5,598	3.5	
	대학원(박사)	552	446	0.8	
	고등전문학교	227	355	1.4	
	전수학교전문과정	124,825	148,708	29.1	
	해외 유학	2,204	2,389	-	
입학 등 대응/장학금(일시금)		12,147	(30,939)	-	
소계		594,875	693,776	19.1	
급부	대학	260,104	574,570	17.0	△ 재원은 국고보조금
	고등전문학교				
	전부학교 전문과정				
	통신				
소계		260,104	574,570	17.0	

주: 사업주체는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임.
자료: 文部科学省(2024f).

나. 대여형 장학금

일본의 정부 학자금지원제도는 오랫동안 ‘학자금대출’기반의 대여형 장학금만 운영해 왔으며, 여전히 주된 정책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대여형 장학금은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1종 장학금(무이자)’와 ‘제2종 장학금(이자)’ 2종류가 있으며, 졸업 후에는 반환해야 한다. JASSO의 추천 기준에 근거하여 대학이 추천하고, JASSO에서 선발한다.

가계 기준에 따라 제1종 장학금은 연 최대 77만엔(자택 외, 월 6.4만 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종 장학금(무이자)은 학업성적과 경제적 형편에 따라 심사를 통해서 무이자 학자금 대출 제도이다. 2021년도에는 약 50만 9천 명, 대출사업비 총액은 약 3,099억 엔이 지급되었다. 제2종 장학금(유이자)은 연 최대 144만엔(월 12만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학 중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졸업 후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는데 특징이다(2022년 3월 대출이 끝나는 자에 붙는 이자는 고정금리 0.369%).

먼저 일본 대학유형별 제1종 무이자 대여형 장학금의 월 대여액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전문과정)의 경우 설립유형과 자택통학 유무를 기준으로 월 대여액이 결정된다. 다음으로 고등전문학교의 경우 설립유형과 자택 통학 유무뿐만 아니라 학년에 따라서도 월 대여액에 차이가 있다. 끝으로 대학원의 경우 대학설립유형이나 자택 통학 유무와 관계없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구분되어 월 대여액이 결정된다. 다만, 제1종 장학금은 무이자로 가계소득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만큼, 급부형 장학금이 도입된 이후 급부형 장학금 수혜자는 제1종 장학금의 월 대여액이 조정된다. 급부형 장학금 수혜자는 제2종 장학금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월 대여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표 16> 일본 대학유형별 제1종 장학금 월 대여액(2018년 이후 입학자, 주간)

(단위 : 엔)

구분	설립유형	자택 통학	자택 외 통학
대학	국공립	20,000/ 30,000/ 45,000	20,000/ 30,000/ 40,000/ 51,000
	사립	20,000/ 30,000/ 40,000/ 54,000	20,000/ 30,000/ 40,000/ 50,000/ 64,000
단기대학, 전문학교 (전문과정)	국공립	20,000/ 30,000/ 45,000	20,000/ 30,000/ 40,000/ 51,000
	사립	20,000/ 30,000/ 40,000/ 53,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고등전문 학교	본과 1-3학년	10,000/ 21,000	10,000/ 22,500
	본과 4-5학년, 전공과	20,000/ 30,000/ 45,000	20,000/ 30,000/ 40,000/ 51,000
	본과 1-3학년	10,000/ 32,000	10,000/ 35,000
	본과 4-5학년, 전공과	20,000/ 30,000/ 40,000/ 53,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대학원	석사과정		50,000/ 88,000
	박사과정		80,000/ 122,000

주: 1) 자택 외 통학의 경우 자택 통학의 월액을 선택할 수 있음.

2) 급부장학금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 대여 월액이 조정됨.

자료: 日本学生支援機(2025a) 자료 기반 작성.

급부형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제1종 대여형 장학금의 지급 가능 금액이 조정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7>과 같다. 국공립대학 이공농계열 재학생의 경우 급부형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도 조정이 되지 않는다.

〈표 17〉 일본 대학유형별 제1종 대여장학금 월 대여액(급부형 장학금 수급자, 주간 기준)

(단위 : 엔)

구분		제Ⅰ 구분	제Ⅱ 구분	제Ⅲ구분	제Ⅳ구분 (다자녀세대)	제Ⅳ구분 (이공농계열)
대학	국공립	자택	0 (0)	0 (0)	20,300 (25,000)	26,500 (20,000/ 31,400)
		자택 외	0	0	13,800	23,100
	사립	자택	0 (0)	0 (0)	21,700 (20,000/ 30,300)	29,800 (20,000/ 38,700)
		자택 외	0	0	19,200	20,000/ 30,400
단기대학	국공립	자택	0 (0)	3,800 (7,100)	24,300 (29,000)	29,500 (20,000/ 34,400)
		자택 외	0	0	17,800	26,100
	사립	자택	0 (0)	0 (0)	22,900 (28,500)	20,000/ 30,400 (20,000/ 36,300)
		자택 외	0	0	17,400	28,000
고등전문 학교	국공립	자택	7,900 (5,600)	20,200 (20,700)	20,000/ 32,500 (20,000/ 35,800)	20,000/ 35,700 (20,000/ 39,600)
		자택 외	0	15,100	20,000/ 33,000	20,000/ 37,500
	사립	자택	0 (0)	0 (0)	24,600 (28,800)	20,000/ 31,700 (20,000/ 36,600)
		자택 외	0	0	26,000	20,000/ 34,500
전수학교 (전문과정)	국공립	자택	1,900 (3,800)	16,200 (19,500)	20,000/ 30,500 (20,000/ 35,200)	20,000/ 34,200 (20,000/ 39,100)
		자택 외	0	0	24,000	20,000/ 30,800
	사립	자택	0 (0)	0 (0)	23,800 (29,400)	20,000/ 31,100 (20,000/ 37,000)
		자택 외	0	0	18,300	28,700

주: 1) 자택 외 통학의 경우 자택 통학의 월액을 선택할 수 있음.

2)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생활보호세대의 사람, 아동양호시설 등에서 통학하는 사람은, ()내의 금액임.

자료: 日本学生支援機(2025b) 자료 기반 작성.

제2종 장학금(유이자)의 대여 월액은 대학 유형에 따라서만 구분되고, 설립별이나 자택 통학 유무 등에 따라서 차등이 주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표 18〉 참고).

〈표 18〉 일본 제2종 대여형 장학금의 대여 월액

대학 유형	대여 월액
대학	월액 20,000엔~120,000엔(10,000엔 단위) -사립대학의 의·치학과정의 경우, 120,000엔~40,000엔 증액 가능 -사립대학의 약·수의학의 과정의 경우, 120,000엔~20,000엔 증액 가능
단기대학	월액 20,000엔~120,000엔(10,000엔 단위)
대학원	월액 50,000엔, 80,000엔, 100,000엔, 130,000엔 또는 150,000엔 -법과대학원의 법학을 이수하는 과정의 경우 150,000엔에 40,000엔 또는 70,000엔 증액 가능
고등전문학교	(본과 1~3학년) 제2종 장학금은 대상 제외 (본과 4,5학년·전공과) 월액 20,000엔 ~ 120,000엔(10,000엔 단위)
전수학교(전문과정)	월액 20,000엔~120,000엔(10,000엔 단위)

자료: 日本学生支援機(2025c) 자료 기반 작성.

끝으로 2024년부터 ‘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수업료 후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학원 석사 과정이나 전문직 학위 과정의 재학자가, 재학 중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졸업 후의 소득 등에 따라 납부(후불)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 학력 기준, 가계 기준은 제1종 장학금과 동일하다. 다만, 수업료 후불제도는 제2종 장학금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며, 제1종 장학금과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시행 방법은 JASSO에서 수업료 상당액의 장학금(지원대상 수업료)을 학생의 학교로 송금하고, 학생은 졸업 이후 소득에 따라서 JASSO에 상환하게 된다. 수업료 후불제도에서는 수업료 상당액의 지원을 포함한 ‘수업료 지원금’과 재학 중의 생활비의 지원인 ‘생활비 장학금’의 두 가지를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수업료는 소속 학교에 직접, 생활비는 학생 본인의 계좌로 송금된다.

수업료 후불제도는 소득연동 상환방식이 적용된다. 2017년 4월 이후 제1종 장학금 이용자의 경우에도 상환방식으로 정액 상환과 소득연동 상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수업료 후불제도와 제1종 장학금은 상환방식에서 두 가지 차이가 있다. 하나는, 2025년 1월 기준 제1종 장학금은 연 수입 146만 엔에 도달할 때까지 할부 월액이 2,000엔인 반면, 수업료 후불제도는 연수입이 300만 엔에 도달할 때까지 할부 월액은 2,000엔을 유지한다. 다른 하나는, 제1종 장학금은 추가 공제가 없는 반면, 수업료 후불제도는 자녀가 있으면 할부 월액을 계산할 때 추가 공제가 있다.

다. 고등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

일본은 2017년도에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학, 단기대학 및 전문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급부형 장학금(給付型奨学金) 제도를 창설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 2018년 6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18(이른바 호네부토 방침(骨太の方針))」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업료 감면 및 급부형 장학금을 대폭으로 확충했다. 이것이 바로 2020년 4월부터 실시한 ‘고등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이다.

세대 수입과 자산 요건(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그에 준한 세대)을 충족하며, 배울 의욕이 있는 학생(성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레포트 등으로 배울 의욕을 확인)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계 기준은 대상 학생과 생계유지자가 ‘수입 기준’ 및 ‘자산 기준’ 모두 해당해야 지원할 수 있다. ‘수입 기준’은 <표 19>와 같이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지급액 산정 기준액 합계에 따라 I~IV구분으로 나뉜다. ‘자산 기준’은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자산액 합계가 <표 20>의 기준액보다 미만이어야 된다. 따라서 기준액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표 19〉 일본 급부형 장학금 지급에 대한 수입 기준

지원 구분	수입 기준 1※)
제 I 구분	-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税. 시정촌 주민세) 소득 비율이 비과세일 것 ^{2※)} - 구체적으로는,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지급액 산정 기준액 합계가 100엔 미만일 것
제 II 구분	-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지급액 산정 기준액 ^{3※)} 합계가 100엔 이상 25,600엔 미만일 것
제 III 구분	-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지급액 산정 기준액 ^{3※)} 합계가 25,600엔 이상 51,300엔 미만일 것
제 IV 구분	-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지급액 산정 기준액 ^{3※)} 합계가 51,300엔 이상 154,500엔 미만일 것

주 : 1※) 수입에 대해서는 2023년 (1월~12월)의 수입에 기반한 2024년도 주민세 정보를 통해 산출된 지급액 산정 기준액이 위의 표에 해당하는지 심사함. 신청 후 수입 감소(실업 등)가 있어도 상황을 고려할 수 없음. 3)

2※) 고향 납세(ふるさと納税)⁴⁾, 주택 대출 공제 같은 세액공제 등(임시적인 감세 조치 포함)은 수입 기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지급액 산정 기준⁵⁾ = 과세 표준액 × 6% - (시정촌 주민세 조정 공제액 + 시정촌민세 조정액)⁶⁾ (100엔 미만은 버림)

자료: 日本学生支援機(2024c) 자료 기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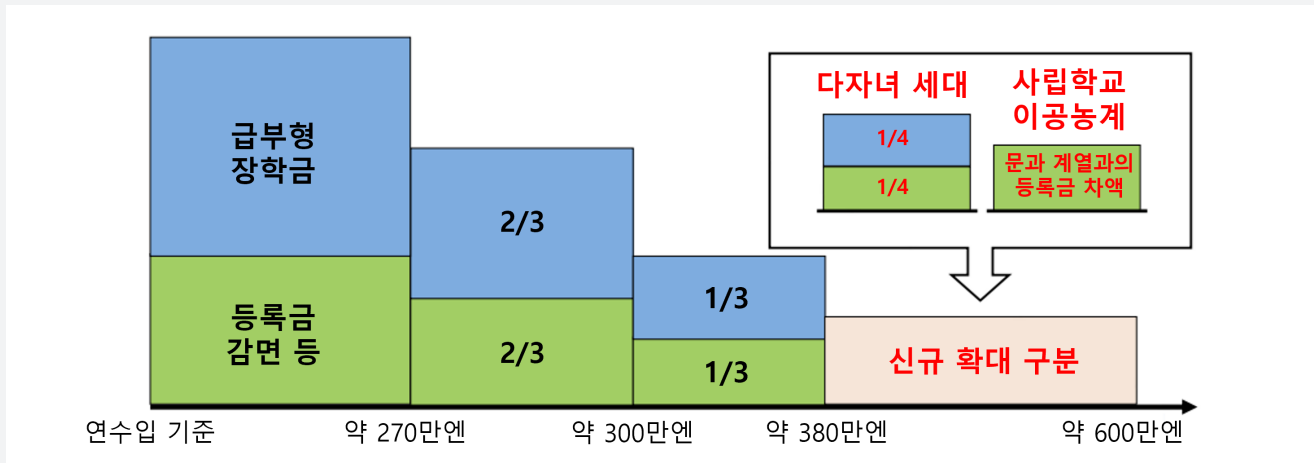
〈표 20〉 일본 급부형 장학금 지급에 대한 자산 기준

생계유지자 인원수	기준액
2명일 경우	2,000만엔 미만
1명일 경우	1,250만엔 미만

자료: 日本学生支援機(2024c) 자료 기반 작성.

- 신청시 수입 등에 변경이 있어도, 심사엔 고려하지 않음.
- 고향(ふるさと) 또는 임의의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액 중 2,000엔을 넘은 부분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원칙으로 전액이 공제되는 제도 (일정 상한은 있음.)
- 시정촌 주민세 소득할이 비과세인 사람은^{2※)}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산식과 관계없이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엔이 된다.
- 정령(政令) 지정 도시에 대해 시민세를 납세하고 있는 경우는, (시정촌 주민세 조정 공제액 + 시정촌 주민세 조정액)에서 3/4를 곱한 액으로 한다.

2024년부터 육아 지원 등의 관점에서 다자녀 세대인 중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이와 더불어 이·공·농과 계열 중간층에도 확대했다([그림 3] 참고). 급부형 장학금의 경우 JASSO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반면,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그에 준하는 세대 학생에게 한정하여 대학 납부시 감면되고 감면된 금액만큼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림 3] 2024년 일본 급부형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자료 : 文部科学省(2024a).

〈지원 대상〉

- 신규 지원 구분 대상은 세대 연 수입이 600만엔 정도까지인 학부 단계 (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 4, 5학년생·전문학교)
- 다자녀 세대 지원 : 부양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세대(부양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경우, 첫째부터 지원)가 대상
- 이공농계 지원 :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학부·학과도 학위 수여 분야에 이학·공학·농학이 포함되면 대상

〈지급 수준〉

- 다자녀 세대 지원 : 전액 지원 중 1/4 지원 (급부형 장학금과 등록금 등 감면)
- 이공농계 지원 : 사립학교 문과 계열과의 등록금 차액 (인문·사회과학 계열과의 등록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착목하여, 사립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

자료 : 文部科学省(2024a)

급부형 장학금 지급액은 <표 21>과 같다. 먼저 일반 과정(통신교육 이외의 과정)의 경우, 대학에서 급부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부터 정규 졸업 시기까지 세대의 소득 금액을 근거한 구분(제Ⅰ~Ⅳ 구분)에 따라, 설립 유형(국공립·사립) 및 통학 형태(자택 통학·자택 외 통학) 등에 의해 정해진 금액(월액(月額))이 매달 지급된다.

〈표 21〉 국·공·사립대학 급부형 장학금 지원 금액 (주·야간제)

(단위 : 엔)

구분		국공립		사립	
		자택 통학	자택 외 통학	자택 통학	자택 외 통학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 (전문과정)	제Ⅰ구분	29,200 (33,300)	66,700	38,300 (42,500)	75,800
	제Ⅱ구분	19,500 (22,200)	44,500	25,600 (28,400)	50,600
	제Ⅲ구분	9,800 (11,100)	22,300	12,800 (14,200)	25,300
	제Ⅳ구분 (다자녀 세대에 한함)	7,300 (8,400)	16,700	9,600 (10,700)	19,000
고등전문 학교 (4학년 이상)	제Ⅰ구분	17,500 (25,800)	34,200	26,700 (35,000)	43,300
	제Ⅱ구분	11,700 (17,200)	22,800	17,800 (23,400)	28,900
	제Ⅲ구분	5,900 (8,600)	11,400	8,900 (11,700)	14,500
	제Ⅳ구분 (다자녀 세대에 한함)	4,400 (6,500)	8,600	6,700 (8,800)	10,900

주: 1) 국공립 경우, 독립행정법인·지방 독립행정법인이 설치한 학교를 포함함.

2) 생활보호 세대이면서 자택에서 통학하는 사람 및 아동 양호시설 등에서 통학하는 사람은 () 안의 금액에 해당함.

자료: 日本学生支援機構(2024b) 자료 기반 작성.

통신교육 과정은 정규 졸업 연도까지 세대의 소득 금액을 근거한 구분(제Ⅰ~Ⅳ구분)에 따라, 수업 형태(인쇄 교재, 스쿨링, 방송, 미디어), 설립 유형(국공립·사립), 통학 형태(자택 통학·자택 외 통학)와 관계없이, 〈표 22〉처럼 금액을 연 1회 지급한다.

〈표 22〉 통신교육 과정 학생에 대한 급부형 장학금

(단위 : 엔)

구분	(국립·공립·사립/자택·자택 외 공통)
제Ⅰ구분	51,000
제Ⅱ구분	34,000
제Ⅲ구분	17,000
제Ⅳ구분(다자녀 세대에 한함)	12,800

자료: 日本学生支援機構(2024b) 자료 기반 작성.

또한 급부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수업료·입학금 면제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세대의 소득 금액 구분(제Ⅰ~Ⅳ구분)에 따라, 설립 유형(국공립·사립) 및 학교 종류 등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입학금·수업료 감면의 상한액(年額)으로 하며, 제Ⅱ~Ⅳ구분 학생은 제Ⅰ구분의 2/3, 1/3, 1/4 금액으로 감면된다. 다만, 대학 1년차 후기 이후부터 지원받는 사람은 입학금 면제·감액을 받을 수 없다.

〈표 23〉 일본 대학유형별 제Ⅰ~Ⅳ구분별 입학금·수업료 감면액 (주·야간제)

(단위 : 엔)

구분		국공립		사립	
		입학금	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대학	제Ⅰ구분	282,000 (141,000)	535,800 (267,900)	260,000 (140,000)	700,000 (360,000)
	제Ⅱ구분	188,000 (94,000)	357,200 (178,600)	173,400 (93,400)	466,700 (240,000)
	제Ⅲ구분	94,000 (47,000)	178,600 (89,300)	86,700 (46,700)	233,400 (120,000)
	제Ⅳ구분 (다자녀)	70,500 (35,000)	134,000 (67,000)	65,000 (35,000)	175,000 (90,000)
	제Ⅳ구분 (이공농)	지원 없음	지원 없음	86,700 (46,700)	233,400 (120,000)
	단기대학	제Ⅰ구분	169,200 (84,600)	390,000 (195,000)	250,000 (170,000)
단기대학	제Ⅱ구분	112,800 (56,400)	269,000 (130,000)	166,700 (113,400)	413,400 (240,000)
	제Ⅲ구분	56,400 (28,200)	130,000 (65,000)	83,400 (56,700)	206,700 (120,000)
	제Ⅳ구분 (다자녀)	42,300 (21,200)	97,500 (48,800)	62,500 (42,500)	155,000 (90,000)
	제Ⅳ구분 (이공농)	지원 없음	지원 없음	62,500 (42,500)	155,000 (90,000)
	전수학교 (전문과정)	제Ⅰ구분	70,000 (35,000)	166,800 (83,400)	160,000 (140,000)
제Ⅱ구분		46,700 (23,400)	111,200 (55,600)	106,700 (93,400)	393,400 (260,000)
제Ⅲ구분		23,400 (11,700)	55,600 (27,800)	53,400 (46,700)	196,700 (130,000)
제Ⅳ구분 (다자녀)		17,500 (8,800)	41,700 (20,900)	40,000 (35,000)	147,500 (97,500)
제Ⅳ구분 (이공농)		지원 없음	지원 없음	40,000 (35,000)	147,500 (97,500)
고등전문학교 (4~5학년생)	제Ⅰ구분	84,600	234,600	130,000	700,000
	제Ⅱ구분	56,400	156,400	86,700	466,700
	제Ⅲ구분	28,200	78,200	43,400	23,400
	제Ⅳ구분 (다자녀)	21,200	58,700	32,500	175,000
	제Ⅳ구분 (이공농)	지원 없음	지원 없음	43,400	233,400

주: 1) 국공립 경우, 독립행정법인·지방 독립행정법인이 설치한 학교를 포함함.

2) ()는 야간제 지원액임.

3) 국립대학은 학비의 표준액이 문부과학성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각 대학의 판단으로 20% 한도로 증액도 인정하고 있음. 공립대학은 지역 학생과 그 외 지역에서 진학하는 학생에서 입학금 차가 있는 대학이 많음.

4) 문부과학성은 문과, 이과, 의과 등과 학부를 대략적으로 나눠 학비 평균치 데이터를 내고 있음.

자료: 日本学生支援機構(2024e) 자료 기반 작성.

사립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의 통신 과정 입학금 감면 상한액(1회 한정 지급)은 30,000엔, 수업료 감면 상한액(연액(年額))은 130,000엔이다. 현재 고등전문학교 및 국공립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에서는 통신 과정 개강이 안 되어 있다.

〈표 24〉 국·공·사립대학 급부형 장학금 지원 금액 (주·야간제)

구분	사립	
	입학금	수업료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약 30,000엔	약 130,000엔

자료: 文部科学省 Site, 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 特設ページ(大学生・高校生・保護者向け).

라. 공적 지원 외 지원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실시하는 장학금 외에는 학교(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공익법인, 영리법인) 등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제도가 있다. 장학제도의 종류나, 단체, 장학생수 등의 경우 2013년 대비 2016년에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6년 대비 2019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학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표 25〉 참고).

〈표 25〉 일본 장학금 사업 개요

(단위 : 개, 명, 억엔)

연도	장학제도	실천단체	장학생 수	장학금 금액
2013	7,275	3,155	400,972	1,162
2016	9,141	4,028	479,950	1,313
2019	8,834	3,809	454,244	1,325

자료: 日本学生支援機構(2019).

2016년 대비 2019년 실적을 보면, 장학생수는 학교와 영리법인은 증가한 반면, 지자체, 공익단체, 의료관계기관, 개인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참고). 장학금 사업비의 경우 공익단체와 영리법인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참고).

〈표 26〉 일본 장학생 수

(단위 : 명)

연도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의료관계기관	영리법인	개인 기타	계
2016	133,143	121,048	196,614	23,116	170	5,859	479,950
2019	139,690	109,104	190,270	14,331	303	546	454,244

자료: 日本学生支援機構(2019).

〈표 27〉 일본 장학금 사업액

(단위 : 엔)

연도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의료관계기관	영리법인	개인 기타	계
2016	44,358,868	32,587,151	41,564,555	10,189,271	74,033	2,563,438	131,337,316
2019	42,428,088	27,000,858	54,131,760	8,608,994	157,302	169,846	132,496,848

자료: 日本学生支援機構(2019).

3. 최근 동향

가. 대학 등록금 등 대학의 최근 변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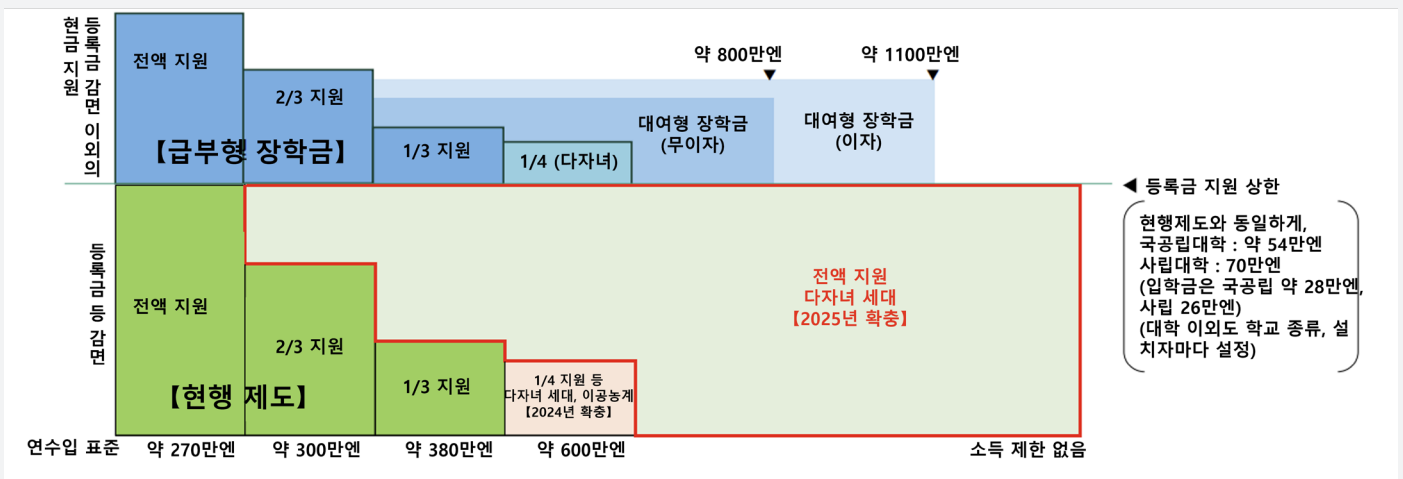
2024년 6월 7일 국립대학협회는 국립대학 재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계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교육/연구, 인재 육성을 위한 운영비 교부금이 감액된 상태가 유지되는 반면 경비나 물가의 상승, 직원 등 인력 확보 필요성 등 환경 속에서 국립대학의 재정 여건이 한계에 달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2025년 1월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전국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대학이 나라가 정한 국립대학 수업료 표준액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05년 이후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국립대학 수업료 표준액이 대학 측의 요청으로 머지않아 인상될 전망이다. 문부과학성에서는 앞으로 5~10년에 걸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라 학비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도쿄대학은 2024년 9월 2025년도 학부 입학자부터 학비를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전년 대비 10만 7천 엔이 증액된 64만 2,960엔으로 결정). 한편, 수업료를 인상한 도쿄대학에서는 2025년도 입학자부터 부모가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등의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지방 출신 학생에 대해서 세대 연 수입이 900만 엔 이하의 경우 수업료를 25% 감액하기로 했다. 또한 수업료 전액 면제에 관해서도 현재는 세대 연 수입 400만 엔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세대 연 수입 600만 엔 이하로 확대할 것을 공지하였다.

공립대학의 경우 지역 내 거주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도쿄도립대학의 경우 2024년도부터 부모 등 학생의 세대 생계유지자(生計維持者)가 도쿄도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제한 없이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도쿄도 이외에는 오사카부 효고현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오사카 공립대학에서는 학생 본인과 생계유지자가 거주 요건을 갖추면 2024년도 이후 재학 연도가 높은 학생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득제한 없이 수업료를 무상화해 왔다. 이는 2026년도에는 전 학년에 적용되고, 2026년도에는 입학금도 면제로 될 예정이다. 효고 현립대학, 예술문화관광 전문직대학에도 마찬가지로 학생 본인과 생계유지자가 거주 요건에 해당한다면 고학년 학생부터 수업료가 무상화되고, 2026년도에는 전 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2026년도에는 입학금도 면제될 예정이다.

나. 고등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의 개선

2025년도부터는 다자녀 세대 학생에게 소득 제한 없이 대학 수업료・입학금을 국가가 정한 일정액까지 무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2024년도 이전부터 재학하고 있는 학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입학 후, 각 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소득 제한은 없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 지원 대상이 되며, 3명 동시에 부양(부모나 친척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받고 있는 동안은 첫째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첫째 자녀가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등, 부양에서 벗어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림 4) 참고). 그리고 국가가 정한 일정액은 <표 28>처럼 현행 제도의 전액 지원과 같다.



[그림 4] 2025년 금부형 장학금 및 수업료 감면 개선 방안

자료: 文部科学省(2024e), (4)-1-15.

<표 28> 다자녀 세대 관련, 국가가 정한 일정액

(단위: 만엔)

구분	국공립		사립	
	입학금	등록금	입학금	등록금
대학	28	54	26	70
단기대학	17	39	25	62
고등전문학교	8	23	13	70
전문학교	7	17	16	50

자료: 文部科学省(2024b).

이를 통해, 둘째 자녀까지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셋째 자녀는 대상이 될 확률이 낮지 않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개선 방향은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3 자녀	제2 자녀	제1 자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3 자녀	제2 자녀	제1 자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3 자녀	제2 자녀	제1 자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3 자녀	제2 자녀	제1 자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3 자녀	제2 자녀	제1 자녀

첫째가 부양에서 벗어난 경우 (취직 등) 첫째가 부양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대학원 진학 등)

대학교	대학교
제3 자녀	제2 자녀
제3 자녀	제2 자녀
제3 자녀	제2 자녀
제3 자녀	제2 자녀

※ ✓ 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3 자녀	제2 자녀	제1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3 자녀	제2 자녀	제1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3 자녀	제2 자녀	제1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3 자녀	제2 자녀	제1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3 자녀	제2 자녀	제1 자녀	

첫째가 부양에서 벗어난 경우 (취직 등) 첫째가 부양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대학원 진학 등)

대학교	대학교
제3 자녀	제2 자녀
제3 자녀	제2 자녀
제3 자녀	제2 자녀
제3 자녀	제2 자녀

※ ✓ 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림 5] 다자녀 세대 지원 (세 자녀가 2살·3살터울인 경우)

자료: 文部科学省(2024b) 자료 기반 작성.

또한 2025년부터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일부 학업 성과 측정 요건이 변경되며, 2024년도 이전부터 재학한 학생도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9>와 같다.

<표 29> 2025년 학업 요건 적정화 주요 내용

구분	기존 내용 (→ 변경 내용)
경고(지원은 계속) 되는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률이 8할 이하【변경 없음】. 반 학기 15회 수업 중 결석이 3번 이상 취득 학점 수 6할 → 7할 이하로 변경: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가 124학점인 경우) 학점 수가 1학년 (18 → 21학점 이하), 2학년 (37 → 43학점 이하), 3학년 (55 → 65학점 이하), 4학년 (74 → 86학점 이하) GPA(성적 평가)가 소속한 학부 등에서 하위 1/4인 경우【변경 없음】
폐지(지원 끊김) 되는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 연한 내에 졸업·수료가 불가능한 경우【변경 없음】 출석률 5 → 6할 이하로 변경. 반 학기 15회 수업 중 결석이 8 → 6 이상 취득 학점이 5 → 6할 이하로 변경: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가 124학점인 경우) 학점 수가 1학년 (15 → 18학점 이하), 2학년 (31 → 37학점 이하), 3학년 (46 → 55학점 이하), 4학년 (62 → 74학점 이하) 경고 요건에서 2회 연속으로 해당【변경 없음】

※ 2회째의 경고가 GPA(성적 평가) 요건 뿐인 경우, 지원 끊김이 아니라, 다음 판정까지 지급 정지

자료: 文部科学省(2024c) 자료 기반 작성.

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장학금제도의 개정(2024~)

문부과학성에서 2024년도에서 장학금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교육미래창조회의 제1차 제언(2022년 5월)과 호네부토(骨太)의 방침(2001년부터 자민당 정권하에서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경제 재정에 관한 기본 방침의 통칭)에 따라서 2022(2022년 6월)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등록금 감면 등을 중산층(학부생 대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등록금 감면과 급여형 장학금을 패키지로 시행하는 ‘고등교육의 수학기원 신제도’에서는, 육아 지원 관점에서 다자녀 세대의 중간층까지, 그리고 이공농계열 대학생 중간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즉, 현행 제도는 가구 연 수입 380만 엔까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새로운 확대 제도하에서는 가구 연수입 600만 엔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둘째, 대학원(석사과정) 대상 등록금 후불제도, 즉 졸업 이후 소득에 따른 후불 납부제도를 창설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졸업 후의 납부에 대해서는 본인 연 수입 300만 엔부터 소득에 따른 납부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자녀가 2명 있으면 연 수입 400만 엔까지는 소득에 따른 납부는 시작되지 않음으로써, 육아기에 등록금 후불 납부가 과다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대여형 장학금의 경우 감액 반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감액 반환 제도는 반환 총액은 불변하되, 매월 상환액을 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전체적인 요건 등을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현행 제도에서는 본인 연 수입 325만 엔 이하의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향후 상한을 400만 엔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배려하는 대응방안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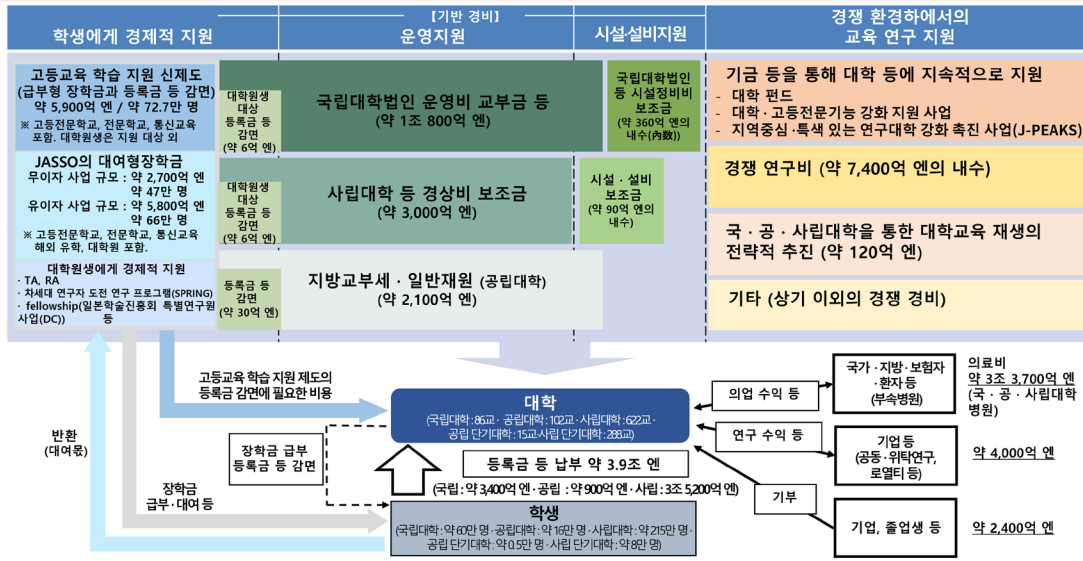
4. 우리나라 제도에 주는 시사점

첫째,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고등교육법」제11조에 제시된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는 등록금 책정에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의 설립유형별로 한국과 일본 모두 사립대학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24년도 학생 수 기준, 사립대학의 비중은 대학(학부)의 경우 일본 78.1%, 한국 76.4%이며, 전문대학의 경우는 일본 94.0%, 한국 98.0%이다. 일본의 경우 높은 사립대학 비중으로 인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보조사업”을 통해 공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학별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령에 표준액을 제시하고, 표준액의 120% 이내에서 대학이 결정하도록 하는 반면(공립대학의 경우에도 국립대학의 규정 적용), 사립대학은 전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일본 대학 설립유형별 수업료 및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국립대학의 수업료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공립대학은 약간 상승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사립대학은 물가지수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일본의 대학 등록금 인상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도쿄대학을 중심으로 한 국립대학들이다. 국가의 공적 지원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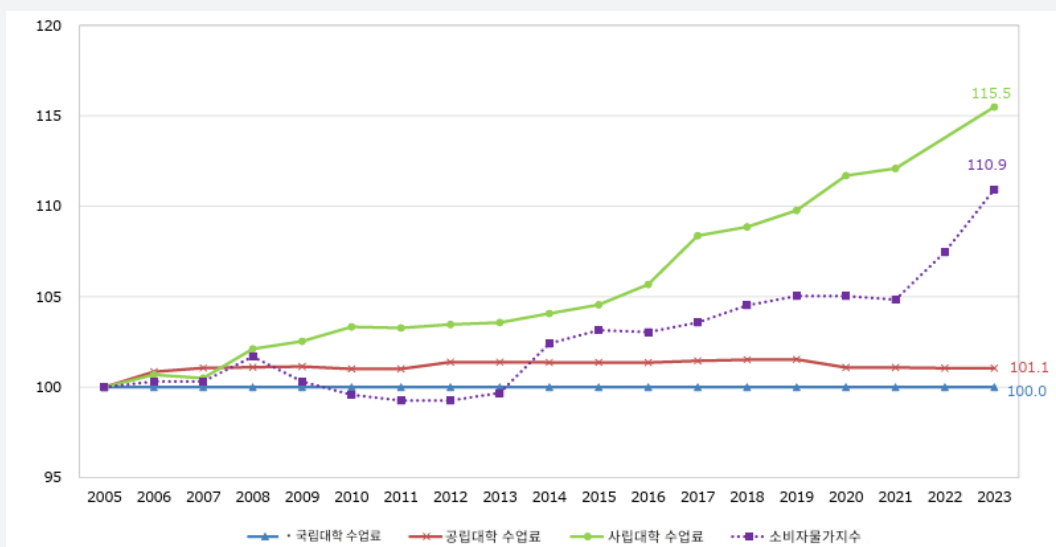
일본의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지원 동향



[그림 6] 일본 대학 단계의 재정조치와 비용부담 구조

- 주: 1) 재정조치는 2024년도 예산(당초) 기준.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은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 몫도 포함. 국립대학법인 등 시설 정비비 보조금은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 및 국립 고등전문학교기구 몫도 포함. 사립대학 등 경상비 보조금은 고등전문학교를 설치한 학교법인 몫도 포함. 시설·설비 보조금은 고등학교 등을 설치한 학교법인 몫도 포함. 공립대학은 2022년도 각 도도부현 대학 수, 학생 수는 2023년도 수치(모집 정지교 포함). 등록금 등 납부액은 2021년도 수치(대학 학부·대학원·단기대학의 합계)이며, 고등교육 학습지원 신제도의 등록금 등 감면에 필요한 액수는 포함하지 않음.
- 2) 의료비는 후생노동성 '2022년도 의료비 동향'에 따른 2022년도의 액수(Ⅲ. 의료기관 종류별 어림셈 의료비 (1) 입원·입원의 계 표6-1 의료비 추이).
- 3) 연구 수익 등은 문부과학성 '대학 등의 산학 연계 등 실시 상황에 대하여'에 따른 2022년도 액수(전체 공동연구·전체위탁연구 연구비 수입액, 치험(임상시험) 등에 대한 시험 조사비 수입액, 지적재산권 등 수입액).
- 4)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개의 법인 대학 이외의 학교를 설치하고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한 기부금도 포함되는 점에 유의. '고등교육 학습지원 신제도'의 등록금 등 감면에 필요한 비용은 기반 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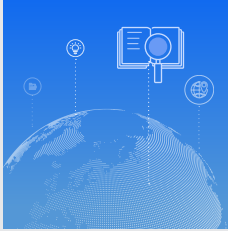
자료: 文部科学省(2024d), (4)-1-3.



[그림 7] 일본 대학 설립유형별 수업료 및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 주: 1) 국립대학 수업료는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것임.
- 2) 공립대학(지역외)과 사립대학의 수업료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것임
- 3) 2005=100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文部科学省(2024d), (4)-1-20.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법」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0항과 제11항에 등록금 인상률 제한 및 규제조항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등록금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대학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는 것은 사립대학이며, 그 범위 역시 법정 인상분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학부모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일본처럼 완전 자율화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법정 인상분에 대해서는 보장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9. 12. 3., 2020. 10. 20.>
-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9. 12. 3., 2020. 10. 20.>

둘째,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제도 전반을 등록금이 아닌 총 학비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수업료에 대한 지원은 수업료 감면을 중심으로, 급부형 장학금이나 대여형 장학금은 생활비에 대한 지원의 관점에서 설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장학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JASSO에서는 주기적으로 대학생에 대한 생활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거비나 교통비 등의 등록금 외 대학생활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산출하여 자택통학 여부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 한도를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수업료 감면이나 급부형 장학금의 경우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중산층까지 차등적으로 등록금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학자금 지원제도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향후 학자금 지원제도 재구조화시에는 총 학비를 기준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 상생 정책으로서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를 활용하는 일본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대여형 장학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지방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역내 지자체와 기업이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젊은이의 지방 기업 취직과 지역으로의 유턴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의 특별교부세를 기반으로 한다. 지자체별로 출신지를 지정하지 않거나 또는 보호자의 해당 지역 거주를 요건으로 할 수도 있다. 한편 지원 금액은 상환액의 1/3, 1/2, 2/3, 전액 등으로 지자체별로 결정할 수 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42개 도도부현(총 47개)에 717개 시정촌(총 1,718개)이 있다.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조치 개요

[도도부현]

- 대여형 장학금 반환 지원을 위해 현지 산업계와 기금을 설치한 경우, 도도부현이 기금에 출연액과 홍보경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활용
- 대상자 요건은 대학 졸업 이후 해당 도도부현에서 취직하는 경우 등(도도부현과 현지 산업계 등이 합의하여 요건 결정)

[시정촌]

- 대여형 장학금 반환 지원에 대한 시정촌의 부담액(기금 설치 불필요), 홍보경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활용
- 대상자 요건은 대학·고등학교 등 졸업 이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지원규모 등]

- 도도부현이, 해당연도의 기금 출연총액의 1/2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총액의 1/2을 대상으로 함
- 도도부현-시정촌 모두 조치율 0.5, 상한 1억엔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치율 0.3, 상한 6천만엔 적용
 - (도부현) 20~24세 인구가 유입 초과, (시정촌) 20~24세 인구가 유입 초과의 도도부현에 소재하고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포함하지 않음(시정촌은 2022년 이후 조건 기재)
- 지방공공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보정 있음

자료: 文部科学省(2024d), (4)-1-16.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이자산정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재단은 확정된 지원 금액을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이자로 상환하여 실질적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공고일 기준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이거나 졸업(수료) 후 5년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를 소득분위별로 지원한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생(휴학생 포함)으로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미취업한 경우에 대출 이자에 대해서 지원한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본인 또는 부모가 강원도에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대학(원)에 재(휴)학생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이자지원사업” 세부 내용 참고).⁷⁾

이러한 지자체 이자지원사업은 지역으로 청년이 유입되어 일자리를 잡고 궁극적으로 정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청년 복지정책 형태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지원액에 대한 체감도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현지 산업계와 연계하여 지역 기업으로의 취직을 유도하고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출액의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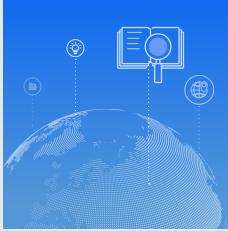
7)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이자지원사업 관련 내용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7_4



끝으로, 학자금 지원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예산이 아닌 별도의 추가적인 자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생에 대한 무상지원이 실질적인 형평성 기제로 다루어질 경우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정책 내에서 타 사업과의 상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급부형 장학금제도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이자 출산율 제고를 위한 범부처 정책 차원에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등록금 부담 경감제도의 일환인 우리나라의 국가장학금과는 차이가 있다. 그동안 일본 급부형 장학금은 소비세 인상분을 재원으로 활용해 왔다. 그런데 문부과학성은 향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연간 추가 예산액을 3.1조엔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결론은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거액이 소요되는 급부형 장학금 예산을 문교예산에서 사용할 경우 기존의 고등교육예산 내용이 잠식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에 ‘교육국채’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장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금지원을 지방상생(청년층의 지방 기업 취업 유인 등)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지자체나 지역의 산업체와의 학자금 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정부 고등교육예산이 아닌 다른 경로의 자원 확보방안을 본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共同通信(2025.01.19.). “東大、地方出身者授業料25%減 年収900万円以下、学力基準も”.
https://topics.smt.docomo.ne.jp/article/kyodo_nor/nation/kyodo_nor-2025011901000602?redirect=1
- 毎日新聞(2025a.01.20.). “国立大の3割「授業料標準額の見直しを」 国の引き上げを期待”.
<https://mainichi.jp/articles/20250119/k00/00m/100/224000c>
- 毎日新聞(2025b.01.20.). “大学授業料「値上げしたい」苦難の国立大、アンケートで浮かんた本音”.
<https://mainichi.jp/articles/20250119/k00/00m/100/219000c>
- 文部科学省(2019). 大学等における修学の支援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政令案の概要.
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icsFiles/afieldfile/2019/05/28/1417422_011_2.pdf
- 文部科学省(2024a). 令和6年度からの奨学金制度の改正（授業料減免等の中間層への拡大）に係る FAQ.
https://www.mext.go.jp/content/2024517-mxt_gakushi_100001505-0517.pdf
- 文部科学省(2024b). 令和7年度からの奨学金制度の改正（多子世帯の大学等の授業料等無償化）に係る FAQ.
https://www.mext.go.jp/content/20240426-mxt_gakushi_100001505_2.pdf



- 文部科学省(2024c). 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の学業要件について.
https://www.mext.go.jp/content/20240704-mxt_gakushi_100001505_1.pdf
- 文部科学省(2024d). 大学分科会(第180回)・高等教育の在り方に関する特別部会(第14回) 合同会議配付資料
【参考資料1】関係データ集. https://www.mext.go.jp/content/20241213-mxt_koutou02-000039186_7.pdf
- 文部科学省(2024e). 大学分科会(第180回)・高等教育の在り方に関する特別部会(第14回) 合同会議配付資料.
【参考資料2】関係資料集(3). https://www.mext.go.jp/content/20241213-mxt_koutou02-000039186_10.pdf
- 文部科学省(2024f). 「諸外国の教育統計 令和6年版」, p.78. https://www.mext.go.jp/content/20240604-mxt_chousa01-000036207_01.pdf
- 文部科学省(2024g). 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 https://www.mext.go.jp/a_menu/koutou/hutankeigen/index.htm(최종열람일 2024.11.08.)
- 文部科学省(2024h). 奨学金事業の充実. https://www.mext.go.jp/a_menu/koutou/shougakukin/main.htm(최종열람일 2024.11.08.)
- 文部科学省(2025a). 我が国の「知の総和」向上の未来像～高等教育システムの再構築～(答申) 関係資料集(6), p.97.
https://www.mext.go.jp/content/20250221-mxt_koutou02-000040400_12.pdf
- 文部科学省 Site. 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 特設ページ(大学生・高校生・保護者向け).
<https://www.mext.go.jp/kyufu/student/daigaku.html>
- 文部科学省 Site. 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 特設ページ(大学生・高校生・保護者向け) 授業料等減免額(上限)・給付型奨学金の支給額 <https://www.mext.go.jp/kyufu/assets/file/kyufu.pdf>
- 旺文社(2022.08.22.). 2022年度 大学の学費平均額. https://eic.obunsha.co.jp/pdf/educational_info/2022/0822_1.pdf
- 旺文社(2024.08.06.). 2024年度 大学の学費平均額. https://eic.obunsha.co.jp/file/educational_info/2024/0806.pdf
- 日本学生支援機構(JASSO)(2019). 奨学事業に関する実態調査結果. https://www.jasso.go.jp/statistics/shougakukin_jittai/_icsFiles/afieldfile/2021/09/28/outline2019_1.pdf
- 日本学生支援機構(JASSO)(2024a). 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の周知用リーフレット.
https://www.jasso.go.jp/shougakukin/about/kyufu/_icsFiles/afieldfile/2024/03/21/r6_zaigaku_leaflet.pdf
(최종열람일 2024.11.08.)
- 日本学生支援機構(JASSO)(2024b). 給付奨学金(返済不要) 給付奨学金の支給額. <https://www.jasso.go.jp/shougakukin/about/kyufu/kingaku.html>(최종열람일 2024.11.08.)
- 日本学生支援機構(JASSO)(2024c). 給付奨学金(返済不要) 進学前(予約採用)の給付奨学金の家計基準
<https://www.jasso.go.jp/shougakukin/about/kyufu/kakei/yoyaku.html>(최종열람일 2024.11.08.)
- 日本学生支援機構(JASSO)(2024d). 貸与奨学金(返済必要). <https://www.jasso.go.jp/shougakukin/about/taiyo/index.html>(최종열람일 2024.11.08.)



- 日本学生支援機構(JASSO)(2024e). 2024年度在学者用 給付奨学金案内、給付奨学金確認書, p.30.
https://www.jasso.go.jp/shogakukin/moshikomi/zaigaku/tebiki/_icsFiles/afieldfile/2024/03/21/kyufu_annai_kakunin.pdf(최종열람일 2024.11.08.)
- 日本学生支援機構(JASSO)(2025a). 平成30年度以降入学者の貸与月額. https://www.jasso.go.jp/shogakukin/about/taiyo/taiyo_1shu/kingaku/2018ikou.html(최종열람일 2025.02.27.)
- 日本学生支援機構(JASSO)(2025b). 給付奨学金と併せて利用する第一種奨学金の貸与月額(併給調整). https://www.jasso.go.jp/shogakukin/about/taiyo/taiyo_1shu/kingaku/2019ikou.html(최종열람일 2025.02.27.)
- 日本学生支援機構(JASSO)(2025c). 第二種奨学金の貸与月額. https://www.jasso.go.jp/shogakukin/about/taiyo/taiyo_2shu/kingaku.html(최종열람일 2025.02.27.)